2021 March, Vol.134

JEONJU
cine complex
jeonjucinecomplex.kr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063)282-140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063)231-3377

무료대관공모전시 **THE STARRING, 인생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 3.16화~4.4일
전주 쇼케이스 **<더스트맨>** 3.17수 19시 40분
전주 아트톡 **<정말 먼 곳>** 3.24수 19시
픽업시네마 **<프란시스 하>** 3.31수 19시 40분

1F

전주영화제작소

자료열람실

3월 개봉영화 × 자료열람실

매월 개봉영화와 연계된 자료열람실 작품추천 코너

홍콩영화의 여제, 임청하

촉산
서극

동방불패
정소동, 당계례

녹정기
왕정

구로사와 기요시의 작품 세계

회로
구로사와 기요시

도쿄 소나타
구로사와 기요시

은판 위의 여인
구로사와 기요시

자료열람실 이용안내

이용시간 오후 1시 ~ 7시까지

이용요금 무료

이용방법

① 열람하고 싶은 자료를 비치된 목록에서 선택한다.
② 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지정된 좌석에서 열람한다.
④ 열람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보유자료

독립·예술영화 DVD & Blu-ray, 한국고전영화 VOD, 영화관련 도서, 정기간행물,
후반제작시설관련 기술서적
※ 자료열람실 보유 자료들은 실내 열람만 가능하며, 외부 반출이나 대여는 절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2020년부터 물품보관함이 설치됩니다. 열람실 이용시 개인물품은 보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음료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제한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전화통화, 큰소리 대화)나 직원 안내에 불응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신착자료 목록

DVD / Blueray

열혈남아_왕가위
차가운 열대어_소노 시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_에단 코엔, 조엘 코엔
의리의 사나이 외팔이_장철
신 외팔이_장철
미드나잇 선_스콧 스피어
여자가 계단을 오를 때_나루세 미키오
방랑기_나루세 미키오
흐트러지다_나루세 미키오
행진하는 청춘 (대단한 젊음)_페드로 코스타
스노든_올리버 스톤
자이언트_조지 스티븐스
스카이 하이_마이크 미첼
하버만_유라이 헤르츠
라운드 미드나잇_베르트랑 타베르니에
7인의 특병대_엔조 G. 카스텔라리
비트 더 데블_존 휴스턴
끝없는 사랑_프란코 제피렐리
트랙커_이안 샤프
테이킹 챈스 (챈스 일병의 귀환)_로스 카츠
실버 스트릭_아더 힐러
노 머시_리처드 피어스
료마 암살_쿠로키 카즈오
셀린느와 줄리 배타러 가다_자크 리베트
네브래스카_알렉산더 페인
천사수녀 요안나_예르지 카발레로비치
돌아온 외팔이_장철
작은 여우들_윌리엄 와일러
지옥의 영웅들_사무엘 풀러
황토지_천카이거

관객동아리 씨네몽의 자료열람실 추천작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The Sense of an Ending, 2017

감독 : 리테쉬 바트라 I
출연 : 짐 브로드벤트, 샬롯 램플링 I
108분 I 드라마 I 15세 관람가

관객동아리 씨네몽
김진실

기억과 망각 속에서, 나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학생 때 만나 헤어진 뒤, 40년 만에 첫사랑, 베로니카를 만난 토니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그러나 베로니카는 냉정하기만 하다. 그녀는 토니만 보면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듯 만남은 물론, 대화까지 거부한다. 매섭게 자신을 밀어내는 그녀에 당황한 토니는 직접 베로니카의 주변을 살피며,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진짜 이야기는 베로니카가 토니에게 대화 대신 건넨 한 장의 편지로 시작한다.

기억은 인간에게 객관적일 수 없는 영역이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기억을 어떻게 보편적이라 평할 수 있을까. 망각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의 사건에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인간은 기억을 선택하고, 조작하는 데 능숙하다. 잊어버리는 일 역시 빠르게 처리하는 데 선수다. 전부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능력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나는 '나'의 기준에서만 완벽한 인간일 뿐이다. 문제는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다.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

토니는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서만 완벽한 인물이다. 자신이 왜곡해버린 과거를 발판삼아 만든 현재를 살고 있다. 전 부인과 만삭인 딸의 불만에는 몇 초간의 침묵이나 잘못을 시인하는 말 몇 마디로 상황을 모면할 뿐이다. 그런 그를 흔들어놓은 베로니카의 편지 한 장. 그제야 40년 전, 자신이 조작했던 기억과 의도했던 망각을 떠올리는 토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없이 덧칠해온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과거의 내가 짊어졌어야 할 책임을 비로소 발견한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입맛대로 과거를 재구성하고, 이를 현재에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를 거침없이 꼬집는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줄리언 반스의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원작 못지않게 강한 흡입력을 갖고 있다. 단언컨대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는?"이란 물음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미안해요, 리키
Sorry We Missed You, 2019

감독 : 켄 로치
출연 : 크리스 히친, 데비 허니우드
101분 I 드라마 I 12세 관람가

A가족의 아버지는 음주 도박 외도로 가정을 돌보지않는다. 어머니는 온갖 궂은 일로 어렵게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삶을 바치다. 아버지는 간혹 집에 와서 곳곳을 뒤져 얼마간의 돈을 뺐았다 싶이하여 다시 도박판으로 나선다. 어머니의 희생이 자녀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게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영화는 A가족과 다르게 양 부모가 모두 자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설정으로 구성되었다. 우리의 보통 가족이다.

이 영화는 사춘기 10대 문제아 아들 세브의 문제되는 행동들로 인해 부모는 애간장이 탄다. 아빠 리키는 하루 14시간을 일해야 집안 경제적 형편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 택배일을 하고 엄마 애비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 상황이 이렇지만 철부지 반항하는 아들 세브로 인해 관공서를 오가야만하는 상황이 참으로 현실을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자녀의 짐이 없어도 많은 부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하는 상황이 버겁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헌신희생 인내 사랑이라는 기적의 힘을 준다. 혼자는 할수없는 것들이다. 이 영화를 통해 가족이라는 생명수를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관객동아리 씨네몽
유세종

4F JEONJU digital indep. cinema

개봉 예정작 동시대에 개봉하는 독립· 예술영화 상영

03
04
개봉

밤빛 night light, 2018

감독 : 김무영 | 출연 : 송재룡, 지대한 | 108분 | 가족, 드라마 | 전체 관람가

산속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희태(송재룡)'에게 헤어진 아내로부터 온 뜻밖의 편지와 함께 낯선 아들 '민상(지대한)'이 찾아온다.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의 어색한 2박 3일이 시작되면서 '희태'가 매일 홀로 다녔던 그 산길을 '민상'과 함께 걷고, 홀로 먹던 밥을 함께 나눠 먹으며 묘한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어두운 밤 혼자였던 '희태'를 지켜주었던 밤빛은 '민상'과 함께할 때 더없이 아름다웠다.

<밤빛> 감독 초청 GV
- 일　시 : 3월 12일(금) 19시 30분
- 게스트 : 김무영 감독
- 진행 : 유순희 시네필 전주 대표

※일정 및 게스트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03
04
개봉

미나리 Minari, 2020

감독 : 정이삭 | 출연 :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 115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어느 한국 가족의 원더풀한 이야기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낯선 미국, 아칸소로 떠나온 한국 가족. 가족들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스티븐 연)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카'(한예리)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모니카'의 엄마 '순자'(윤여정)가 함께 살기로 하고 가방 가득 고춧가루, 멸치, 한약 그리고 미나리씨를 담은 할머니가 도착한다.

의젓한 큰딸 '앤'(노엘 케이트 조)과 장난꾸러기 막내아들 '데이빗'(앨런 김)은 여느 그랜마같지 않은 할머니가 영-못마땅한데… 함께 있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어느 가족의 아주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

03
11
개봉

중경삼림 重慶森林, 1994

감독 : 왕가위 | 출연 : 임청하, 양조위, 왕페이, 금성무 | 102분 | 드라마 | 15세 관람가

1994년 홍콩,
"내 사랑의 유통기한은 만 년으로 하고 싶다"
만우절의 이별 통보가 거짓말이길 바라며 술집을 찾은 경찰 223.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술집에 들어온 금발머리의 마약밀매상.
"그녀가 떠난 후 이 방의 모든 것들이 슬퍼한다"
여자친구가 남긴 이별 편지를 외면하고 있는 경찰 663.
편지 속에 담긴 그의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쥔 단골집 점원 페이.
네 사람이 만들어낸 두 개의 로맨스.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독특한 상상력.

03
18
개봉

정말 먼 곳 A Distant Place, 2020

감독 : 박근영 | 출연 : 강길우, 홍경, 이상희, 기주봉 | 115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은 진우,
그에게 뜻하지 않은 방문자가 도착하며
조용했던 날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03
18
개봉

파이터 FIGHTER, 2020

감독 : 윤재호 | 출연 : 임성미, 백서빈, 오광록 | 104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낯선 곳에서 새 출발하게 된 진아는 우연히 복싱에 매료되고, 어쩌다 복서가 된다.
두 탕 알바에 고된 몸으로 오른 링 위에서 그녀가 마주한 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자기 자신이었다.
삶의 발버둥이 아닌 스텝을 가르쳐준 복싱. 진아는 살아가기 위한 진짜 파이팅을 준비하는데…
두 주먹 두 발로 세상에 맞서 파이팅 투게더!

03
25
개봉

스파이의 아내 スパイの妻, 2020

감독 : 구로사와 기요시 | 출연 : 아오이 유우, 다카하시 잇세이 | 115분 | 서스펜스, 멜로/로맨스 | 12세 관람가

태평양전쟁 직전인 1940년, 아내 사토코와 행복하게 살던 고베의 무역상 유사쿠는 사업 차 만주에 갔다가, 그곳에서 엄청난 만행의 현장을 목격 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다. 사토코는 남편의 비밀이 그들의 완벽한 가정을 위협할 것이라 생각하여 결사적으로 유사쿠를 말리지만 결국 그의 대의에 동참하여 기꺼이 '스파이의 아내'가 되기로 한다.

전주 아트톡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2020년부터
매월 1회 개봉영화 한 편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심층해설을 진행하는
'전주 아트톡'을 진행합니다.
관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람료
일반 7,000원
회원 6,000원
경로, 어린이 5,000원

정말 먼 곳
A Distant Place, 2020
감독 : 박근영 | 115분
| 출연 : 강길우, 홍경, 이상희, 기주봉
| 드라마 | 전체 관람가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은 진우,
그에게 뜻하지 않은 방문자가 도착하며
조용했던 날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 영화 상영 후 전문가 초청 심층해설이 진행됩니다.

일시 | **3월 24일(수) 19시**
게스트 | **장우진 강원독립영화협회 대표/영화감독**

전주 쇼케이스

무료상영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가운데 미개봉작 1편을 선정하여 감독, 배우 또는 영화전문가와 토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더스트맨
DUST-MAN, 2020
감독 : 김나경
출연 : 우지현, 심달기, 강길우 I 92분
드라마 I 12세관람가

스스로 떠도는 삶을 선택한 태산(우지현)이 먼지 위에 그림을 그리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영화

※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일시 I **3월 17일(수) 19시 40분**

게스트 I **김나경 감독** 진행 I **강지이 영화감독**

상영시작 1시간 전부터
선착순(1인 2매까지 가능)으로
티켓 증정
(단, 티켓 소진 시 입장 불가
주차도장 발급 안됨)

후원회원 시사회

무료상영

매월 관객설문조사 상위권 작품 가운데 1편을 선정하여 개봉 하루 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후원회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시사회

밤빛
night light, 2018
감독 : 김무영 I 108분 I 출연 : 송재룡, 지대한
I 가족, 드라마 I 전체 관람가

일시 I **3월 3일(수) 20시**

- 후원회원 본인만 입장 가능
  일반관객은 후원회원 가입 후에 입장가능
- 후원회원 가입안내
  - 매표소 현장에 비치된 가입서 작성후 현금(또는 계좌이체)로 회비납부
  - 가입회비 : 평생회원 50,000원 / 1년 단기회원 20,000원
    (단, 평생회원은 연간 100명 선착순 모집후 마감)

상영시작 1시간 전부터
후원회원에 한하여 선착순(1인 1매)으로
티켓 증정(단, 티켓 소진 시 입장 불가)

PICK UP 픽업시네마 CINEMA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문화예술인을 1명씩 초청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지막 회차에 관객들과 함께 보고 싶은 작품 상영 및 씨네토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프란시스 하 Frances Ha, 2012
감독 : 노아 바움백 I 86분 I 출연 : 그레타 거윅, 믹키 섬너, 아담 드라이버 I 코미디, 멜로/로맨스 I 15세 관람가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둘도 없는 친구 소피와 살고 있는 27살 뉴요커 프란시스.
무용수로 성공해 뉴욕을 접수하겠다는 거창한 꿈을 꾸지만 현실은 몇 년째 평범한 연습생 신세일 뿐이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애인과 헤어지고 믿었던 소피마저 독립을 선언하자 그녀의 일상은 꼬이기 시작한다. 직업도, 사랑도, 우정도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그녀는 과연 당당하게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가장 보통의 뉴욕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선정사

뉴욕에서 아티스트로 살아남기

영화 속 주인공, 프란시스는 무용수의 꿈을 안고 뉴욕으로 와 살아간다. 존버정신으로 꿈을 찾아 방황하는 그녀의 모습은 29살에 뉴욕에 무작정 가서 방황하던 뉴요커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우린 언제나 공원에서, 바에서, 거리에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꿈을 꾸어갔다. 매달 월세를 걱정하면서도 하고 싶은 것들을 버릴 수 없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를 늘 하고 있는 그 시간들, 온전히 나로서 멋지게 살고 싶어 방황하던 청춘의 몸부림들.

데이비드 보위의 모던러브 음악 배경으로 뉴욕 시내를 신나게 달리는 장면은 프란시스가 아주 힘차게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프란시스는 결국 무용수가 되는 대신, 무용단에 사무직으로 일하며 현실과 타협한다. 그리고 댄서가 아닌, 안무가로서의 커리어를 열어간다.

인생은 알 수 없다. 가보지 못한 곳에 내가 그토록 찾던 무엇이 있을 수 있다.
프란시스와 나의 삶을 통해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 조금 다르게 살아도, 조금 타협해도 괜찮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

게스트 프로필

송지연
미디어 아티스트/영화감독

- School of Visual Art New York, Master of Fine Arts in Film Directing
- ICP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Summer Course
- 전북 VRAR제작거점센터 지원사업 선정, <예술마을 VR 투어 앱 개발> 2020
- 감독_평창올림픽 D100 프로모션 영상_뉴욕 한국문화원
- 해외 아트컨설턴트_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 프로덕션 디자인팀_장편영화 <박쥐>

- **관 람 료 : 일반 7,000원 / 회원 6,000원 / 경로, 청소년, 복지 5,000원**
- **상영일시 : 3월 31일(수) 19시 40분**

※ 상영후에 게스트와 함께하는 씨네토크가 진행됩니다.

{ 개봉영화 심층칼럼 }

역사는 유령처럼 떠돌다 망령처럼 불쑥 다가온다.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Akik maradtak, 2019
감독 : 버르너바시 토트 I 출연 : 카롤리 하이덕, 마리 나기, 아비겔 소크 I 88분 I 드라마, 멜로/로맨스 I 15세 관람가

이용철
영화평론가

역사는 유령처럼 떠돌다 망령처럼 불쑥 다가온다. 근래에는 스탈린의 존재가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그는 영화에 수없이 등장했지만, 2021년이 시작하고 두어 달 사이에 내리 세 편의 개봉작에서 그의 이름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만들어진 시기와 국가, 그리고 배경이 각각 다르지만 세 영화를 공통으로 묶는 이름은 스탈린이다. 첫 영화는 1월 초에 개봉한 <미스터 존스>(2019)다. 노장 아그네츠카 홀랜드의 영화에서 영국의 젊은 기자는 1930년대의 소련으로 안내한다. 스탈린과 인터뷰를 가지고 싶었던 그는 서방 세계가 잘못 알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 존스와 조지 오웰의 만남을 통해 <동물농장> 속 스탈린을 재발견하게 하는 영화다. 1월 중순에 개봉한 두 번째 영화 <나의 작은 동무>(2018)는 소련에 속했던 시기의 에스토니아가 배경이다. 렐로 툰갈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는 1950년대에 수용소로 끌려간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어린 소녀의 눈에 비친 현실에서 슬픔이 잔잔하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월 초, 헝가리 감독 버르너바시 토트의 <살아남은 사람들>(2019)이 세 번째로 찾아왔다. 2차 세계대전 직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의 두 사람은 홀로코스트로 연결돼 있지만, 두 인물이 지금 겪는 억압 및 폭력과 더 상관있는 존재는 스탈린이다. 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름 - <미스터 존스>의 소련 본토, <나의 작은 동무>의 소련 합병 영토, <살아남은 사람들>의 소련의 위성국가 – 은 요즘 관객에게 아마도 낯설게 다가올 터인데, 거대한 영토의 수많은 사람을 정치,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압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감을 안긴다. 다른 배경을 지닌 세 영화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고 한국에서 개봉한 이유는 아마도 우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스탈린의 시기가 현재 재조명될 이유를 딱히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나 역사를 쉽게 묻으려는 일부의 경향이 발견되곤 한다. 가까이로는 세월호의 비극부터, 조금 더 멀리 광주민주화운동,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잊으려는 목소리가 간혹 흘러나오는데, 역사를 불러내고 끊임없이 해석하는 위의 영화들을 보노라면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헝가리 작가 F. 바르코니 주자의 <남자들의 세계의 여자들을 위한 소설>을 각색한 것인데, 눈에 띄는 건 의사 알도와 어린 소녀 클라라의 관계다. 원작을 읽지 못해 소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지 못하나, 적어도 영화의 몇 장면은 중년 남자와 어린 소녀의 관계를 유달리 묘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의 의도는 스탠리 큐브릭의 <로리타>(1962)나 데스몬드 데이비스의 <푸른 눈의 소녀>(1964)가 불러일으키는 논란과는 분명한 거리를 둔다. 오히려 영화는 표면에 드러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시선을 비판하는 쪽에 가깝다. 세계대전의 비극을 막 통과하고, 여전히 소련과 스탈린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지닌 최선의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을 영화는 돌려세운다. 파시즘이나 사회주의 혁명은 그들의 유토피아를 목표했지만, 정작 소외당한 건 인간이었다. 스탈린 치하 소련은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행복한 사람들을 다룬 영화를 여럿 만들었는데 기실 그건 선전에 불과했다. 건강한 미소가 유쾌하게 퍼지는 그런 영화와, 위 세 영화의 고요한 울림은 선명하게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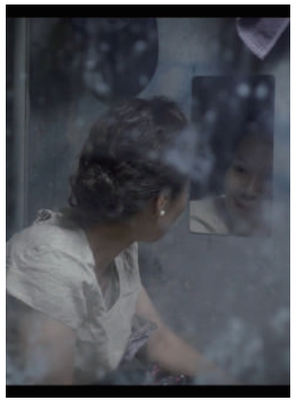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극적 시기를 통과했고 통과 중인 두 명의 외로운 인간을 조명한다. 클라라는 포옹을 좋아한다. 알도는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준다. 여성의 몸에 손만 대도 불편하게 인식하는 지금, 어린 소녀와 몸을 대고 누운 중년 남자의 모습은 애써 시대의 냉혹함을 먼저 떠올리도록 만든다. 수용소에서 부모를 잃은 소녀는 부모의 정을 그리워하고, 소녀의 눈으로 보기에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의사는 외로운 남자다. 그래서 클라라와 할머니, 그리고 알도는 유사 가족을 형성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살아남은 사람들>은 조용한 영화다. 세 영화가 서늘할 기운이 돌 정도로 고요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이웃과 친구를 고발해야 했기에 서로를 믿지 못하던 시대, 삶 자체를 비밀로 숨기고 감추어야 했던 시대는 곧 기이한 침묵의 연대를 형성했을 것이다. 감정이 힘겨울 때면 화장실을 찾는 알도가 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모호한 표정을 짓는지, 나는 궁금했다. 영화 또한 감정을 하소연하듯이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닌 우리로선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기에 역으로 영화는 타자의 역사, 타자의 행동과 감정 앞에서 맑은 눈을 유지하기를 권한다. 토트는 단편영화 <오퍼레이션 스톤>(2017)에서도 청산되지 않은 비극적 역사를 다룬 바 있다. 영화만큼 태도에 관심이 가는 감독이다.

{ Zoom in
전주 쇼케이스 }

전주 쇼케이스 2월 상영작

<갈매기> 관객과의 대화

with 김미조 감독



갈매기
Gull, 2020

감독 : 김미조 I 출연 : 정애화, 김가빈, 김안나 I
75분 I 드라마 I 15세 관람가

박영완(진행/전북독립영화협회 대표이사) <갈매기>라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가 먼저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미조(감독) 여러 가지 계기들이 합쳐졌는데요. 최초의 기억은 대학원을 다녔을 당시 학교에서 과제로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오라는 과제를 받았었는데, 당시에 저희 어머니를 주제로 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랑 1박 2일 동안 바닷가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모습을 담으면서 다음에 영화를 찍게 된다면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게 하나의 계기였고요. 두 번째는 그냥 길을 걷다가 한낮의 천변다리 아래에서 저희 어머니를 닮으신 중년여성분을 봤었어요.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뒤로 굉장히 젊은 20대 남성분이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데 그분이 약간 범상치가 않았어요. 보통의 걸음걸이가 아니라 굉장히 바짝 붙어서 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저한테는 위화감을 줬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상력으로 촉발이 되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영완 소재가 굉장히 세면서 요즘 시기에도 적절한 것 같아요. 생존권과 인권의 문제가 이 영화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김미조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아시는 분께서 노량진 구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신시장이 건립되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걸 보고 가까우신 분이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보면서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존권 문제에 대해 항상 고민하면서 '과연 먹고 사는 게 뭘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에 대해 항상 공포감을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 때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됐어요. 만약에 정말 먹고 사는 것이 걸려있는 생존권과 투쟁이란 것들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 사이에서 한 개인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을까? 한 개인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보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이런 배경을 같이 넣었습니다.

박영완 감독님의 이전에 만든 단편영화 <혐오가족>, <혀>를 보면 <갈매기>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연관된 소재를 영화 속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미조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상하게 변태 분들을 마주치고 접한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경험들이 기억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궁금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항상 영화를 만들 때는 가장 가까운 저에게서 많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몇 년간 저를 붙잡았던 주요 화두가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단편도 자연스럽게 그런 쪽에 화두를 뒀어요.

박영완 촬영 컨셉이 좋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외화면이 주는 효과를 너무 잘 살리신 거 같은데 이 영화가 실질적인 폭력 장면은 사실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김미조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이 성폭력 소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가장 어려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복이 받은 상처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오복한테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복이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보이지 않게 아예 삭제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오복이 기택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 역시도 화면 밖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폭력의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상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다짐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지키면서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영완 시작부터 궁서체로 영화가 시작하는데 궁서체는 사실 흔히 쓰진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영화가 끝날 때 사용하신 뽕작 음악을 크레딧에서 찾으려고 봤더니 안나오더라구요. 특정하게 음악 정보는 안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이 음악을 선택한 이유와 그 다음에 글자체는 어떤 건지가 궁금해요.

김미조 한창 <갈매기>를 만들었을 때 1960~70년대 한국영화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근그때 영화들을 보면은 첫 시작 타이틀이 거의 화면의 60%정도로 굉장히 크게 뜨거든요. 그게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갈매기>도 작은 영화지만 타이틀로나마 존재감을, 아우성을 내질러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약간 큰 타이틀을 생각을 했었고요. 궁서체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당시 60, 70년대 한국영화가 가졌던 거친 분위기들이나 느낌을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촬영이나 색보정 레퍼런스들도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이나 <별들의 고향>, <꼬방 동네사람들> 같은 60~80년대까지 한국영화들로 삼았요. 색보정도 그런 식으로 필름룩을 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당시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느낌의 영화들을 <갈매기>에도 비슷하게나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뽕짝 같은 경우는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 이랑 청량리 수산시장을 갔었을 때 답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어디를 가든 항상 흘러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아, 어쩌면 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음악이 비타민처럼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후반작업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언제나 이런 뽕짝이 흘러나온다는 설정을 가지고 반영 했습니다.

박영완 주인공의 '주오복'이라는 이름에 혹시 의미가 담겨 있나요?

김미조 저희 어머님이랑 삼겹살 먹으러 들어갔던 그 곳 이름이 오복 삼겹살이었어요. 근데 그 오복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복이 다섯 가지 복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이름이 오복이면서 박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박영완 정애화 배우님이 주오복 역을 연기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미조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캐스팅이었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대학원 졸업 영화이고 저예산 독립영화이다 보니까 그만한 배우분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 60대의 주연을 맡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연히 동기의 촬영 현장을 갔다가 거기서 정애화 배우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때 저분이랑 꼭 하고 싶다고 제 마음속 1순위로 생각을 해뒀었거든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전달해 드렸었을 때는 고사하셨었어요. 너무 하고는 싶지만 아무래도 여름에 촬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요인들이나 여러 가지 복합전인 것들, 일정상 문제들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운명인 건지 다른 배우 분한테 혹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줄 수 있냐며 아는 배우 분께 여쭤 봤는데 그분이 추천해 준 분이 또 정애화 배우님 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시 한 번 강하게 어필하려고 진심을 담은 글을 꼭꼭 눌러 담아서 다시 보내 드렸고 드디어 수락을 해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15회차 촬영이었는데 15회차 동안 모두 다 나오셨거든요. 아무래도 주연이다 보니까 한 회차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나오셔야 했고, 3주 동안 진행되는 촬영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애화 배우님이 아니었다면 이 영화는 절대 만들어지지 못 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박영완 이 영화를 보면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개인의 투쟁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봐도 엄마로써 또는 동생으로서 마음이 가고 힘들고 화나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코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언급되거나 한 적이 있을까요?

김미조 네,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죠.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생각을 안 하거나 배제를 할 수 없는 것

▶12p에서 이어짐

이 저 역시 지난 세월 여자로서 겪었던 것들이 분명히 쌓여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가장 오랜 시간 지켜봤던 중년 여성은 저희 어머니이시거든요. 실제로 이 영화 안에 들어간 캐릭터 안에는 제 어머니의 역사 같은 것들도 일정 부분은 반영되어 있었고, 저 역시도 딸만 넷이 있는 집안에 막내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딸이 많은 집안이 가지고 있는 '아들이 낳지 못하는' 특유의 열등의식이 조금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걸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딸로써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분명히 이 영화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페미니즘과 절대 무관한 영화는 아닙니다.

관객 1 영화 제목이 왜 갈매기인지 설명부탁드려요.

김미조 안톤체홉의 '갈매기'라는 희곡을 좋아해서 여러 번 공연을 봤었는데 그 희곡에 매료가 많이 됐어요. 원래 안톤체홉을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갈매기라는 희곡과 제목이 주는 묘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언젠가 영화를 찍게 되면은 꼭 갈매기라는 이름의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갈매기는 육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복도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지난하고, 거친 곳이지만 오복이 이 현실이라는 육지에 두 발을 붙이고 끝까지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복이 갈매기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의 제목을 끝까지 갈매기로 고수했습니다.

관객 2 영화 속에선 예단비는 금액을 얼마나 요구했나요? 혹시 영화 상으로 설정하신 금액이 있으셨나요? 이게 혹시 본인 언니들의 상황을 이제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나요?

김미조 아, 저희 언니 중에 한 명만 결혼을 했는데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했습니다. 예단예물, 꾸밈비 이런 거 없이 깔끔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글들을 보면 예단비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예단비 관련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친구들도 있다 보니 구체적인 금액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뭔가 인애와 오복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집안이 공무원 집안이고 하다 보니까 조심스레 추측은 해봤어요.

관객 3 오복의 둘째 딸이 운동복 복장을 보고 등짝을 때리는 씬이 있는데 셋째 딸이죠? 그게 딸을 향한 걱정인건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체하는 행동인지?

김미조 음...시나리오 쓰면서 성폭력 관련한 저서들을 봤을 때 성폭력을 당한 어느 여성의 수기를 읽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신도 그런 일 있었는데 자신의 딸에게 옷차림은 지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스스로에게 좀 놀랐다" 이런 내용이 이었는데 오복 역시도 성폭력은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오복의 나이 때문도, 오복이 술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님에도 오복 스스로도 자신도 모르게 딸을 탓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체득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오복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딸을 향한 걱정이기 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12p에서 이어받음

전주영화제작소

무료대관공모전시

3F 전주영화제작소

영화 · 영상 후반제작실

전주영화제작소 3층에 위치한 후반제작실에는 영화·영상의 후반작업을 지원하는 **색보정실, 영상편집실, 미디어변환실, 촬영장비실, 영상교육실**이 있다.

색보정실

SGO MISTIKA 시스템

색보정 작업 뿐만아니라 Finighing - VFX - Stereo3D - HFR - HDR- UHD - 8K - Conform - DCP 및 다양한 파일 포맷 입출력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하이엔드 색보정 및 마스터링 솔루션

HDR 및 일반 영상 작업을 위해 필요한 RAW 파일 및 Log 파일들의 Color Space 컨버팅 툴 제공하며 하이라이트 데이터 손실이 많은 Lut 기반이 아닌 컬러 수학 함수로 정확히 계산하는 기능으로 HDR 및 색보정 작업에 정확한 색을 구현하며, SuperWhite Controller로 HDR 영역의 하이라이트를 자유롭게 조정 가능 하다.

DI 주요 작품

2020
[잔칫날] - Director 김록경
[휴가] - Director 이란희
[위안] - Director 이혜린
[아름다운 남자, 시벨롬] - Director 서수민,박홍식

2019
[우리는 서로에게] - Director 김다솜
[영화광 연속살인사건] - Director 박진성
[증발] - Director 김성민
[해협] - Director 오민욱

신규 대여장비 안내

무선송수신기 Teradek Bolt 500 XT Set

무선팔로우 TILTA Nucleus-M Partial Kit IV

티비로직 LUM-171G

핸드핼드그립 TILTA UH-T04
Universal Pro Hand Grip System

시설 및 장비대여 절차

홈페이지→장비대여→장비,대여날짜 선택→신청하기→
결제방법선택(카드결제,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 입금)→결제진행→장비 사용 후 반납

문의처 : 063) 282-1400 / E-Mail : cineplex@jeonjufest.kr / 홈페이지 : jeonjucinecomplex.kr

전주영화제작소

후반제작시설 교육프로그램

2021년 전주영화제작소 영화·영상

상반기 워크샵 교육생 모집

교육내용 영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을 초빙하여
영화제작 과정에 맞게 촬영, 편집, 색보정 순으로 교육을 진행

모집기간 3월 2일 (화) ~ 3월 9일 (화) 15:00
*수강생 미달일 경우 각 강좌마다 추가 접수 진행 예정입니다

모집인원 각 강좌당 10명

교육비 100,000원 (3개 강좌 모두 신청)
50,000원 (1개 강좌 신청)

교육기간

교육	교육 기간	교육 장소
촬영	03월 20일, 21일 (토,일) 13시~17시	전주영화제작소 3층 교육실
편집	04월 03일, 04일 (토,일) 13시~19시	
색보정	04월 17일, 18일 (토,일) 13시~19시	

*교육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E-mail 접수
✉ cineplex@jeonjufest.kr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전주영화제작소 교육프로그램 담당자
✆ 063-282-1400

JEONJU cine complex

3월 개봉작 일정

※ 하단 작품 외에 추가 개봉되는 작품은 추후에 홈페이지 및 영화관 현장에서 안내될 예정

3월 4일 (목)

밤빛

미나리

3월 11일 (목)

중경삼림

3월 18일 (목)

정말 먼 곳

파이터

3월 25일 (목)

스파이의 아내

후원회원 초청 시사회

밤빛

3월 3일 (수) 20시

▶ 상영시작 1시간 전
선착순 무료
(후원회원 본인 한정)

전주 쇼케이스

더스트맨

3월 17일 (수) 19시 40분

with **김나경** 감독

▶ 상영시작 1시간 전
선착순 무료
(1인 2매까지 가능)

전주 아트톡

정말 먼 곳

3월 24일 (수) 19시

with **장우진** 강원독립영화협회 대표/영화감독

▶ 관람료 : 7,000원
할인 : 6,000원
경로, 복지, 청소년 : 5,000원

픽업 시네마

프란시스 하

3월 31일 (수) 19시 40분

with **송지연** 미디어아티스트/영화감독

▶ 관람료 : 7,000원
할인 : 6,000원
경로, 복지, 청소년 : 5,000원

관람객 매너 안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지켜주세요.

- 정시상영
- 상영 10분전 입장
- 사진촬영 불가
- 음식물 반입 불가
- 휴대전화 전원 off
- 관람중 대화 삼가
- 엔딩크레딧 종료 후 점등
- 상영시작 후 발권 및 입장 제한

전주주차장 070.8960.9880(고사동 477-1)
3시간 무료 주차 | 추가요금 10분당 300원

옥토주차장 고사동340-1(전주시네마타운 뒤편)
3시간 무료 주차 | 추가요금 30분당 1,000원

※ 단, 무료상영/대관행사는 주차 혜택 없음
※ 옥토주차장은 혜택시간 관계없이 밤12시이전까지 출차
※ 매표소에서 반드시 주차권에 도장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됨

JEONJU cine complex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063.282.140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063.231.3377
http://jeonjucinecomplex.kr
※ 매주 월요일 / 명절 당일 휴관